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2002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이사야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1

충현의 만나

2002

가정예배 · 이사야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1월의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라는 더욱 위대한 믿음을 잉태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정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일까요?

사실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새해'라는 것은 그저 달력이 바뀌는 것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는 그 짧은 순간을 만끽하고는 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곳으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들과 똑같이 행동하시겠습니까?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 12:7).

우리의 달음질을 출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달음질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나 믿음의 순간 순간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끝은 그분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실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2002년 1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사도행전 서론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과 같은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접하면서 역사서나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쯤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보면 사도행전이 교회 초기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를 따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를 역사가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전도자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경로 혹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알려주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역사는 다름 아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즉 '복음사(福音史)'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 자체가 복음을 전달하는 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도행전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설교들은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이 복음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지상 생애 이후에도 계속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역사,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교훈들을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귀중한 소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의 내용도 '복음', 내지 '복음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은 비록 베드로와 바울의 활동이 중심이 되기는 하지만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둘째, 저자인 누가가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시야를 옮기는 방식으로 복음에 접촉하는 새로운 지역과 이 지역의 전도에 가담한 사

람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초점은 이 복음 전파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함께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을 맞이하는 이번 달에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힘'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을 통해 충현의 모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복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첫 달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용분해

1. 서론(1:1-26)
2. 오순절 사건(2:1-41)
3. 예루살렘 교회(2:42-8:3)
4. 예루살렘 외부로 교회가 확장됨(8:4-11:18)
5. 바울의 사역 개시와 첫 번째 전도 여행(11:19-14:28)
6. 의식법에 관한 예루살렘 회의(15:1-34)
7.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15:36-18:22)
8.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18:23-21:26)
9. 죄수가 되어 로마로(21:27-28:31)
10. 후기(28:30-31)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 아주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이스라엘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반응 중의 하나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란 단지 안식일에 일을 쉬는 것을 넘어서, 공평과 의를 행하고(1절) 모든 악을 금하며(2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4절)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영적인 거듭남이 있은 후에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방인과 고자(敍子)에게까지 구원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외부인'으로 여겨졌던 이방인과 고자는 회막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 안뜰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이름을 부여하고 성산으로 인도하여 예배에 동참케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5-7절). 10-12절에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거스르는 불의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돌아온 탕자처럼 두 팔을 벌려 환영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구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도 불의한 지도자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계획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56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장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저자는 단지 악인의 타락상에 대한 고발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의 사후를 묘사함으로써 고통 중에 있는 의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인을 대함에 있어서 무자비하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이 일찍 죽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이 큰 환난을 겪지 않도록 일찍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는 안식의 처소로 미리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성을 문란케 하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우상숭배가 더 나타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15절).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구원의 길을 강제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회개는 모든 죄를 눈같이 회개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어깨 너머로 던져 버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긍휼을 체험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겸손을 주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서는 5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 중에서 대표적 죄악으로 볼 수 있는 거짓 금식과 안식일을 소홀히 다루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고도 생생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열심 자체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만 열심을 내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외적인 축복을 받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3절). 육적 오락을 즐거움으로 영혼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중노동을 시켰고 금기야 충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악행금지와 선을 행하는 것을 참된 금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금식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십니다(사 59:19, 60:1). 안식일에는 세속적 사업을 중단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는 오락을 금하며 사사로운 생각과 말을 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육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제사를 보면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의식을 한다해도 영적인 자세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헛된 일일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충실한다 해도 내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면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나를 알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증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57장은 음란한 우상숭배를, **58장은** 가증스러운 금식을 고발한 반면 본장은 사회적인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저자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중보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57-59장에 나타난 죄악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1.2절). 포로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증언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부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3-15절에 나타난 죄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처참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9-11).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임과 동시에 공평과 정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로 인한 구원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과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먼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것을 깨끗이 씻기십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확실하며 빠른 길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에 민감한 내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영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서 고통 중에 있을 지라도 머지 않은 장래에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고 종말론적으로 임할 최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통한 빛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자는 온 열방을 끌어들이는 능력의 빛이 바로 구속 사역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먼 미래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나아올 것입니다(4-7). 이 예언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성취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시온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10). 하나님은 '화평'을 통해 시온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때는 죄와 슬픔과 영적인 황폐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예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예언에 따라 승리를 선포하고 새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비로소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포로된 것 같아해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모든 상황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스라엘의 죄악에 이어 시온의 외적인 영광을 언급한 이후에 본장에서는 메시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회년의 선포는 53장의 종의 대속적 희생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장은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면서 기쁨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를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겸허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죄의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와 구원을 누릴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고 오직 연약한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직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심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회년을 통해 이스라엘이 모든 종 된 것에서 해방되었듯이 메시아를 통해 또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 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와 종은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불의한 것들을 제거하며 의와 평화만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삶의 불안과 회의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십시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매일 주님의 구원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향해 “헵시바라 뿔라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1-5절에서는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의 회복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로 등장하는 여호와와 종 곧 메시아는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보자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은 부패와 반역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59: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셔서 구원과 기쁨과 축복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을 “헵시바”(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다)와 “뿔라”(결혼한 여자)로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총을 받는 신부와 같이 여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6-12절까지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 곧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는 것(6,7절)과 시온 백성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속히 여호와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10-12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특권을 가진 종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비유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만이 구원과 심판을 친히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4절) 그 실행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롬 11:36).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심으로 세상의 심판하실 날을 그 마음에 작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징조를 통해 이 날이 매우 임박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마 24:3-14). 그런데 이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뵈옵는 구원의 기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대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주로, 아버지로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그 분이 정하신 날에 홀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맞이한 위기의 해결책을 기도함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두렵고 놀라운 이적을 행할 권능을 가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7절에서는 주의 선대하심을 배반한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8-12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창조자로서 비천한 피조물된 자들에 대한 넓으신 아량으로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전적으로 패역한 존재이며 진흙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6,8절). 그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권능을 소유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4,8절). 이 사실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길 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롬 3:23-27; 요일 1:9).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지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롬 3:28; 갈 2:16; 엡 2:8).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난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고 구한다면 그분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본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죄를 묘사하는 전반부(1-7절)와 신실한 자와 불신실한 자에 대한 상반되는 결과들에 대해 언급하는 중반부(8-16), 그리고 본서의 주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밝히는 후반부(17-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18,19절). 비록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은 택함 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갑작스런 재난과 사고도 없어서 더 이상 불행한 일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21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르고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축복이 허락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비록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장차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차 이런 놀라운 화평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 있는 참 평화를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이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사야서는 단순히 '신천신지'가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에게 그 같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은 그 백성의 무슨 선한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절대 권능에 의해서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과 축복을 누릴 자는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17절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악한 자를 향하여 최후 심판을 단행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거듭된 기회와 때를 무시해 버린 악인들에게 엄격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18-2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이 열방 중에서 나아와 새 예루살렘 곧 천국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24절에서는 구원받은 시온의 모든 백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여호와께 경배드리며 패역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롬 12:1).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어떠한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분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복음서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도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의 인도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여 교회를 세운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첫 장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 본서의 머리말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직접 나타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11절은 예수님의 승천과 최후의 지상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12-26절에서는 가롯 유다의 최후와 제비를 뽑아 사도를 보충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최후의 지상(至上)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오직”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최우선 과제인 복음 전파에 심혈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역자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대로(요 14:16-26). 그리고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대로(욥 2:28-32)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1-4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5-13절). 베드로는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가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14-36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처럼 파고 들어가, 단번에 3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37-41절). 여기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생활은 교제하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였습니다(42-47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오늘날 성도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도 역사 하십니다. 3천명을 회개시킨 성령의 역사는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 역사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초대교회의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형제애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이 됐고 복음전파의 도구가 되어 급속도로 성장해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직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자선의 동전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는 물질적인 자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 장애인은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이 표적이 되어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이 증거됩니다. 이와 함께 성령의 임재가 또한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간존재의 양상이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걷게된 지체장애인이 맨 처음 한일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입니다(8:9절)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복음을 전파합시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복음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련을 만납니다. 시련은 개인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합니다.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되지만 때로는 시련을 당해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견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잡혀가서 옥에 갇히고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1-7절).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8-12절). 산헤드린 회원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무척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힘으로 위협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단호한 대답을 합니다(13-22절). 핍박이 다가올 것을 예견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23-37절).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시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떠한 시련도 극복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시련과 핍박이 닥치면서 오히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핍박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핍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1-11절)은 작은 욕심으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며, 둘째 부분(12-16절)은 교회의 내적인 시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며 복음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셋째부분(17-42절)은 사도들이 다시 투옥되는 핍박이 나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오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합니다.

믿음의 길에 평안함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안함 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시련과 핍박은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기도 제목 / ①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요 15:1-11). 각 지체는 몸에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성도들은 각각의 직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무엇이며 직분자의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구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도들은 사역의 분담을 위해 집사들을 선출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첫째,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둘째, 지혜가 충만하고 셋째, 칭찬 듣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인간적인 덕성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이에 일곱 집사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의 공생애에 동참했던 사도들은 이제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전담하게 됩니다(1-7절).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성장하게 되던 때에, 일곱 집사 중에 믿음과 지혜가 뛰어난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되자 모함을 받아 공회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8-15절).

주님의 일꾼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은 세상적으로 칭찬 받는 명예의 길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뛰어난 스테반은 집사의 직분을 받고는 순교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직분자는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칭찬 받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기독교에서는 역사를 볼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특징을 가집니다. 역사는 인간들의 우연한 사건들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처음과 끝이 있으며 역사 속의 존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 안에서 역사적 소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역사관에 입각하여 7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요약하면 첫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전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지 건물자체로서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대적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심문을 받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면서도 예수님처럼 원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59절, 눅 23:46참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60절, 눅 23:34참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 ① 이 몸과 마음이 주의 일을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스데반을 돌로 쳐죽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박해를 면했지만 많은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박해는 심각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명령의 두 번째 지역이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까지 박해로 인한 선교지역의 확장과 9-25절까지의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과 이 속에서 이루어진 마법사 시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40절에서는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전한 복음전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31절 말씀에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돌리로다”는 말씀이 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되 기존의 자기 종교,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자 하였습니다. 돈이 있다고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성격을 흐리게 하여 무력하게 만들거나 타락시키는 장본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꾸준히 자기를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물질만능 시대에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거스리며 살게 하소서 ② 긴급 철수한 이슬람선교지 R국과 방글라데시에 그동안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천이라는 대 구원의 사건들 다음에, 사울의 회개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행 9:1-30; 22:3-21; 26:1-23).

앞에서 본 대로, 스테반의 처형에 뒤이은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인근지역으로 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다메섹 회당에 있는 도망자들을 모두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1-9절은 사울이 떠나게 되는 배경과 다메섹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고, 10-25절은 박해자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의 형제로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31절은 바울이 새 제자가 되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43절은 다시 시작된 베드로의 사역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의 애니아를 고쳐주신 내용과 옴바의 다비다를 고쳐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절대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서 포기되지 않으며, 언제나 계속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단 한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고넬료의 회심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6년쯤 지나서 일어났습니다. 대략 주후 4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옴바와 가이사랴라는 두 도시입니다. 이 사건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대인들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이런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런 굴절된 시각을 바로 잡고서야 세계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1-23절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은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과 그가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9-16절은 유대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본 환상과 베드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23절은 이방인과 유대인 즉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24-48절은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24-33절까지는 고넬료에 대한 베드로의 전도의 내용이, 34-4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헤방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율법주의와 전통적인 인습, 그리고 이기심과 오만함을 떨쳐버리고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율법주의와 전통적인 인습, 이기심과 오만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 일을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8절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계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고넬료의 가정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19-30절의 말씀은 안디옥교회를 통한 사울의 재등장입니다. 사울은 다메섹회심 이후 10년 간 길르기아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교회의 바나바의 부름을 통해서 교회의 전면에서 다시 부상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박해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며(19-20절), 그 결과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강력하고 성숙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적임자였습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바울은 오랜 은둔생활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역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바라고 계시며 이 일을 하나님의 시간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은 베드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② 단기선교를 통해 가야할 땅을 열어주시고, 이 일을 이해 전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지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현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박해와 관련된 상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19절은 헤롯 아그립바왕의 박해를 통해서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20-23절은 헤롯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들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24-25절은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어려움 속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개입하시고 그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상황이 의외로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붙들길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는 만약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해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이 상황의 해결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하셨는지를 알게 하소서. ② 최은아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현지에 잘 적응하고, 늘 성령충만하여 어린이와 심방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손과 마음에 복음이 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마 28:19; 막 16:15; 눅 24:47; 행 1:8). 하나님의 심장은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세게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1-4절), 구브로(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고(5-12절), 다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어키 지역으로 방향을 돌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방향을 돌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13-52절). 이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하여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특별히 오늘 13장의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복음전도 내용입니다.

바울은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성경의 구절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16-22절)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23-31절)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용서와 자유함을 선포하게 됩니다(36-39절).

이 놀라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이방인 신자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복음을 전해 달라고 청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 일행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거부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삶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및 더베에서의 전도사역이고 8-18절은 루스드라에서의 사건, 즉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한 것이고 19-28절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3절 말씀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13:44-52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쫓는 사람의 수가 점차 증가하자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박해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2절)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장기간을 체류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입니다. 이것은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환경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복음을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1)

전도는 주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힘을 입어 복음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35절까지는 예루살렘 공의회 문제로 신약성도들이 구약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36-40절 2차 전도여행의 출발 전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권위자라고도 하는 바나바가 어떻게 다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싸움은 주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싸웠다는 것에 더 놀라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싸움의 원인은 마가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서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도 여행에서 함께 끝까지 동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끝까지 함께 못한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함께 가자고 하는 데서 의견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견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서로 다투고 나중엔 갈라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이 있다면 분리하고 분쟁하는 자는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화평한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굉장히 다양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은 디모데의 바울 전도여행에 합류, 6-10절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바울, 11-15절은 바울의 빌립보 도착과 루디아의 회심사건, 16-34절은 바울의 투옥과 구원, 35-40절은 바울의 공식적인 석방의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5절 “밤중 쫓겨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는가?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있는 동안 매도 맞았을 것이고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감옥 안의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기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찬양까지 했다는 부분입니다. 신앙인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기도와 찬양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아마 이 모습을 함께 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불신앙의 모습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잡히는가? 혹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모습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2차전도 여행의 연속되는 기사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절은 데살로니가 전도 10-15절은 베뢰아 전도 16-34절은 아덴 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베뢰아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 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상하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면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수함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말씀으로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말씀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뢰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그 받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못 믿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것에 대해 다시 알아보고 확인하는 일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대해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받는 자세와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말씀에 대한 열정을 주옵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2절은 15장 36절에서부터 시작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기사의 후반 종결부입니다. 그리고 23-28절은 21:16절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앞 부분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5-11절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 중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울의 지금 환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려운 환경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타락한 도시였고 완고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러나 이것은 바울 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두렵고 힘든 일이 있는 모든 자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두려워 떨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두려워 말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도중에 생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에베소의 성령강림 사건, 8-10절은 바울의 두란노 서원 강론, 11-20절은 바울의 능력과 에베소의 마술서적 분서사건, 21-22 바울의 전도계획, 23-41은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요사건입니다. 오늘은 8-10절의 바울의 전도를 통해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 했습니다. 이것은 작심하고 성의를 다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복음을 들은 이들의 마음이 굳고 순종치 않았으며 마침내는 비방하는 자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났고 오히려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을 한 사역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사역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입니다. 똑 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복음이 열매를 맺게되는 이유는 전하는 자의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현장에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 이라고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합시다.

기도 제목 / ① 주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지역의 사역내용이고 4-12절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의 귀환여정과 드로아 사역, 13-38절은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정과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12절 말씀 유두고의 살아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강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유두고는 창턱에 앉아 추락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의 원인이 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진 반면 유두고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답 밖에 없습니다. 오직 바울이 그 청년의 죽은 몸을 한번 안아 주었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깊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통해 오늘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 이 청년의 되살아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에게 나온 많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었던 기적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적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위로 받고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자들의 삶이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단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바울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사랑을 알게하소서 ②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을 깨게 하여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 / 눅 22:14~20

들어가면서(서론)

이 세상의 절기는 인간에 의해 고안되어 지켜지곤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다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출 12:11). 아무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고, 이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 날은 승리의 날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며 지켜야 할 절기가 되었습니다(신 16:1, 왕하 23:21, 스 6:19).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유월절의 승리를 누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의 손아귀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건져내시듯,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신들을 건져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이들에게는 더욱 의미심장한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15절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유의하십시오).

‘주 예수 해변서’ (284장)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요 6:48)

미국 뉴욕 맨체스터 출신의 시인이며 화가인 래드버리(M. A. Lathbury, 1841~1913)는 1877년 어느 날,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열린 전도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생각하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찬송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어떤 찬송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따르는 수천의 무리의 허기짐을 불쌍히 여기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떼어 나누어 주시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에서 자신의 몸이라 칭하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인류를 먹이시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선 이제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주님주신 생명의 양식의 배부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복잡한 리듬이 아니라 한 박자 한 박자 차분한 리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차분히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셨으며,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유월절을 어떠한 새로운 예식으로 승화시키셨는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음주에 맞이하는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누가복음 22:14~20을 읽으십시오).

① 14절 - “때가 이르매”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시간과 사역에서)

② 15절~16절 -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③ 17절~18절 - 예수의 마지막 만찬

④ 19절 -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의미

⑤ 20절 - 예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는 의미

2. 다음 주일 설교(“이를 행하여 기념하라”)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본문 15절)

② 예수께서 성찬을 행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까?(본문 19절)

③ 성찬을 행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벧전 1:19)

④ 성찬을 행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골 2:3)

⑤ 성찬을 행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시 85:10)

⑥ 성찬을 행하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행 1:11)

1.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자체가 다른 외국어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뜻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경우를 역력히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의 고난을 생각하지만, 제자들은 모세의 유월절과 같은 영광을 생각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격려하시지만,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찬의 식탁에서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
2.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은 왜 성찬에 참여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태초에 그리고 영원 전에

찬송 / 32장(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본문 / 창 1:1~31

들어가면서(서론)

모든 우주와 만물의 기원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마치 짐승이 우주선의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창조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인간의 논의는 언제나 많은 논란을 야기할 뿐이었으며, 결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창조에 대해 인간이 품게 되는 모든 난제를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그 어떤 부연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하셨고, 모든 것은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믿음의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없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32장)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 26:12)

찬송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는, 17세기 네덜란드의 민요를 크렘저(E. Kremser, 1838~1914)가 편곡하여, 네덜란드의 애국찬송가로 널리 사용된 ‘주 은혜를 받으려(찬39장)’에 감명을 받은 미국의 여류 찬송작가인 캐디 코리(J. B. Cady Cory, 1882~1963)가 이 곡의 선율에 새롭게 가사를 붙여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

창세기 1:1~2:3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기까지의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진정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선 우리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히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펼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재시여~’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을 우리 성도들은 진정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택하신 자녀들을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들이심을 생각해 봅니다. 그 천국을 소원하며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환란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다 함께 높이 부를 찬송을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재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찬송가는 못갓춘 마디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여러게 시작하지만 이 곡은 전반적으로 확신에 찬 음성으로 힘있고 웅장하면서도 경건한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게 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을 요구하시지 이해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튼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시작’ 되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창세기 1:1~31을 읽으십시오).

① 1절~2절 -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② 3절~5절 - 첫째 날

③ 6절~8절 - 둘째 날

④ 9절~13절 - 셋째 날

⑤ 14절~19절 - 넷째 날

⑥ 20절~23절 - 다섯째 날

⑦ 24절~25절 - 여섯째 날

⑧ 26절~31절 - 사람을 지으심

2. 다음 주일 설교("태초에, 그리고 영원 전에")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창 1:1)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② (창 1:1)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때를 태초(창조 前)로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③ (창 1:1) 성령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④ 창 1:1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까?(엡 1:4 참고)

⑤ 태초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사 43:7, 히 1:2)

⑥ 창 1:1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⑦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예정하신 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요 3:16,36, 골 1:13~14,19~20, 롬 1:1~4)

⑧ 창 1:1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가면서(결론)

1. '태초'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다지 쉽게 다가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의 기원과 인류역사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창조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창조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불신 이웃들이 창조에 대해 물으시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다함께 어떻게 설명할지 나누어 보시고, 좋은 결론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 :

본문 :

제 3 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찬송 / 102장(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본문 / 마 1:1~17

들어가면서(서론)

창세기 1장 1절이 모든 피조물 세계의 시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믿음의 세계의 시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장차 소멸될 세계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면, 마태복음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믿음의 세계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통을 근거로 메시아를 증명하려는 마태의 의도는 결코 혈통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다말, 라합,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02장)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빌 3:8)

이 찬송의 작곡자인 쉬어(G. B. Shea, 1909~?)는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대중음악 가수가 되는 것과 교회음악가가 되는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삶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민하던 그에게 평소에 애송 하던 찬송시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보여주며 권면하였고, 그는 이 찬송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이 시에 곡을 붙여 완성하였으며 이후로도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네” (마 16:6)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인간적으로는 이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지혜와 같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것에는 진정한 구원의 참 생명이 없는 주님보시기에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모습 또한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이 세대는 교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그것이 올바른 삶의 가치기준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은 자리매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서 조차 이러한 풍조는 자리잡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송은 약박자로 시작하는 못갓춘마디의 곡입니다. 따라서 여리고 부드럽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에 점차 감정의 깊이를 더해가며 불러집니다. 후렴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선율이 나오는데 이 또한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릇,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언급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자만함의 콧대를 꺾어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성경공부는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먼저 마태복음 1:1~17을 읽으십시오).

① 1절 - 새로운 믿음의 세계

② 2절~6절a -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③ 6절b~11절 -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④ 12절~16절 -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⑤ 17절 - 열 네 대의 세 번

2. 다음 주일 설교(“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② 창 3:15절과 1:1~2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위치는 무엇입니까?(창 22:18 참고)

③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왜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을까요?

④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창 17:4)

-
- 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다윗을 향한 언약, 그리고 다윗과의 언약으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창 49:10, 삼하 7:12~13)

- ⑥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가 참된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입니까?(사 61:1~3, 요 14:6, 행 4:12)

나가면서(결론)

1.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은 세상적인 관점(철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조명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서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언약과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약과 신약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언약과 믿음의 세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십시오.

-
2.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14대씩 나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왕이심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실 수 있겠습니까?

제목 :

본문 :

제 4 과

영원한 말씀

찬송 / 235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 요 1:1~3

들어가면서(서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서 '가라사대'라고 표현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창조에 동참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구현이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은혜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요 1:17).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말씀'이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들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용한 '말씀'이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로고스' (Logos)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35장)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 119:103~105)

미국 시카고 레벨출판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1874년에 주일학교 기관지인 「생명의 말씀」(Words of Life)을 출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은 그가 은혜 받은 말씀인 요한복음 6:68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요 6:68)

그는 당시 찬송작가이던 필립 폴 블리스(P. P. Bliss, 1838~1876)에게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출간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이에 걸맞는 찬송가를 작곡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블리스에 의해 작사 작곡된 이 찬송가는 「생명의 말씀」창간호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널리 애창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좇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이들은 대부분 떠나고 말았습니다(요 6:60~70).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참 믿음은 이론과 지식과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으려는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주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지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란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으며,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8분의 6박자로 된 이 찬송은 한 마디를 두 박자로 해서 생기 발랄하게 찬양합니다.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선율이 마치 살아서 펄떡이는 물고기와 같이 주님 말씀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 곁에서 맘껏 뛰놀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이 되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가 창조의 주체요, 참된 진리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독특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진실로 진실로”라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NIV’ 역본에는 ‘truly’를 한번 넣었으나, 원문에 충실한 ‘NASB’ 역본에는 ‘truly truly’라고 두 번 넣었습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은 유대의 회당관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를 메시아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분으로 믿는 것 때문에 의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관원들에게 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은 진정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우선 요한복음 1:1~3을 읽으십시오).

① 1절 - 태초에 하나님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

② 2절 -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

③ 3절 - 만물의 근원

2. 다음 주일 설교("영원한 말씀")를 읽고 질문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창세기 1:1의 '태초'와 오늘의 본문의 '태초'라는 단어는 각각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② 1:14절에 의하면, '말씀'은 무엇으로 차고 흘러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③ 1:18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④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요 10:30)

⑤ 예수께서 말씀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 그는 하나님이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나가면서(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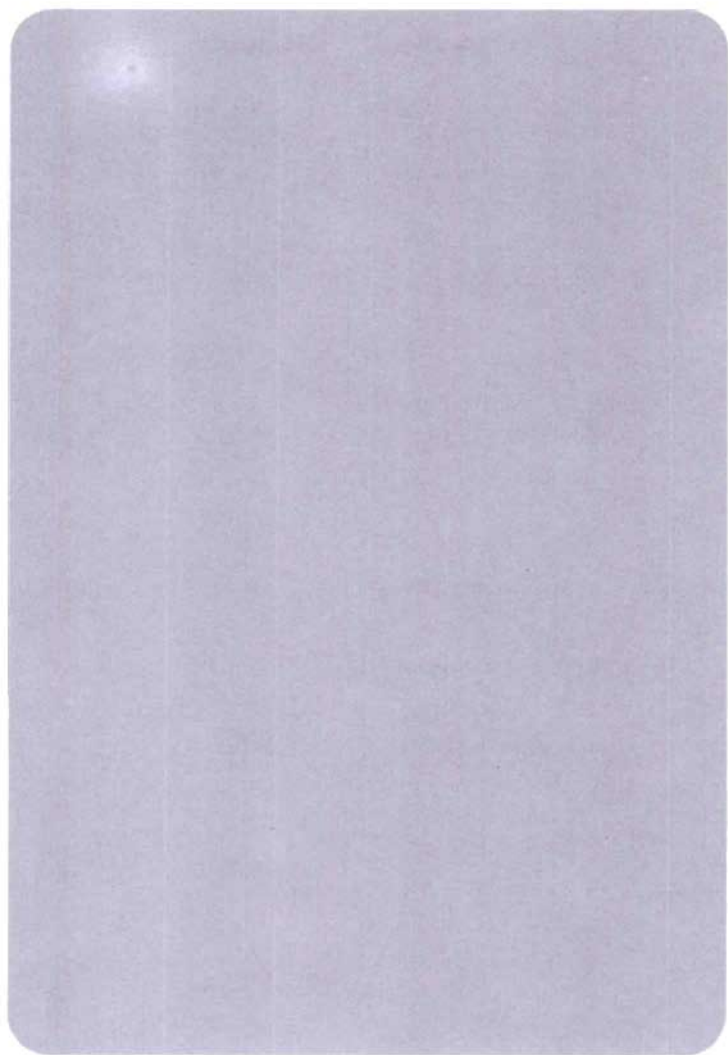
1.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의 본문은 ‘영원한 말씀’ 이시라는 또 다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 사도는 또 다른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들을 말해보도록 하십시오(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
2. 성부 하나님께서는 돌판의 글씨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셨고, 예수께서는 직접 입을 열어서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으신 은혜와 진리는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십시오(출 34:6에서는 '인자'와 '진실'로 표현됩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1 과

뜻을 정하여

찬 송 / 377장
읽을 말씀 / 단 1:1-21
외울 말씀 / 단 1:8

다니엘에 대해서 아십니까?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단 1:7). 그것은 '벨의 왕자' (Bel's prince)라는 뜻인데, 바벨론에 있는 이방신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습니다(단 4:8, 사 46:1, 렘 50:2, 5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이방신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이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의 성격을 살펴보면 결단력이 있었고(1:8), 용기있게 행동하며(2:24-30), 기도하는 사람(단 6:10, 9:3-19)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세 번씩이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9:23, 10:11, 19).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자', 이것이 다니엘에 대한 간결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본문 살펴보기

1.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2.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한 뜻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뜻을 생각하며 적용하기

3.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당신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떠한 뜻을 정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해진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방해와 곤란이 있었습니다(단 1:7, 10-11). 어떻게 정한 뜻을 바꾸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단 1:9, 3:16-18, 잠 16:7, 19:16, 히 11:33-34)

- 뜻을 정하기는 쉽지만 그 정해진 뜻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좁은 길(마 7:13-14)이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히 11:6, 딤후 3:12).

- 이제 우리 함께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할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이 믿음의 길, 거룩한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능히 걸을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2년 1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안창덕(1-6일), 이성욱(7-12일), 박인기(13-18일)목사
고광환(19-24일), 김용덕(25-31일)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유진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